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		배포일시	2019. 5. 24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	철도시설안전과	담당자	· 과장 김유진, 서기관 이성민, 주무관 배상철 · ☎ (044) 201 - 4623, 4624, 4627	
보도일시		2019년 5월 25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24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가철도 지하역사 미세먼지 잡는다… 960억 원 추경안 편성 - 4호선 범계역서 현장점검회의…노후 공조기 개량,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가철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60억 원*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, 5.24일(금) 미세먼지 추경예산 사업대상인 4호선 범계역에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공조기 개량(906억 원), 공기청정기 설치(24억 원), 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(30억 원)

- 이번 현장점검회의는 황성규 철도국장과 철도공단, 코레일 관계자, 전문가 등이 참석, 범계역의 미세먼지 현황, 공조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, 국가철도 지하역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도 논의하였다.

- '0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'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'을 수립·시행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28% 저감*되었으나,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.

*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(PM₁₀) : ('07) 97 → ('12) 82 → ('17) 69 $\mu\text{g}/\text{m}^3$

- 특히, 올해 7월부터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(PM₁₀) 기준이 강화(150 →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)되

고, 초미세먼지(PM_{2.5}) 기준도 신설($5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)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.

- 따라서, 강화된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내 노후 공조기 개량,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, 그 일환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“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하역사의 열악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

- “철도공단·철도공사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,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·전문가·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철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전담조직(TF)을 운영하고 있으며, 정례적인 논의와 추경예산 반영 등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까지 ‘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’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이성민 서기관(☎ 044-201-46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